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62호(2000/2/21)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Internet Web; <http://www.sarangbang.or.kr>



"이 사람부터 심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문수사의 배후에, 매카시즘 유포의 선두에 서 있는 이 사람도 그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방은 총선연대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취지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내부 역량상 충실하게 활동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와 같은 '반인권' 전력자들의 '활보'를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심판해야 할 사람들, 바로 '인권'을 짓밟고도 뻔뻔하게 이빨을 드러내는 인간들입니다.

내실있는 사업으로 진보적 인권운동상 정립키로

- MT와 집중 토론을 거쳐서 사업계획 마련 -

사무국에서는 지난 1월 22일의 우이동 MT와 2월 3일의 집중 토론을 거쳐서 올해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방향으로 진보적 인권운동의 정체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의 강화와 인권운동연합 건설 준비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외부 연대사업은 줄이고 내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의 사업이 운동적 대의에 따른 연대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외부 연대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사업에만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시민 연대에도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단위들은 사업별 소모임(팀)을 조직하고, 사업단위별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사업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며,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결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단위들은 상임활동가와 자원활동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다양한 소모임의 집합체가 되며, 이들은 각자의 사업에 맞게 다양한 사업방식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런 성과들을 기초로 회원 조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단위별 담당자와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변화된 체계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 인권하루소식(대표기자/유해정)- 전문기자제를 도입하여 4인의 전문기자와 함께 매일 편집회의를 진행함. 기사 실명제도 도입함. 9월까지 진행하면서 인권언론매체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변화를 꾀하기로 함.

△ 인권교육실(류은숙/배경내/고근예)- 인권활동가 워크숍, 인권캠프, 교사모임 등을 추진하고, 교재개발팀, 월례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인권교육의 내용을 풍부화하기로 함. 청소년 분야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단체 보고서를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진행.

△ 인권정보자료실(류은숙/최은아)- 차별성 있는 인권정보자료실을 위해 지금까지의 자료실을 전면 개편하기로 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가공에 대한 방향성을 밀도있게 고민기로 함.

△ 사회권위원회(사무국장/최은아/이주영)- 사회권조약을 구체적인 권리 항목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사회권 조약 해설서 발간, 사회권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아셈 및 WTO에 대한 인권적 접근 등을 진행하기로 함. 사회권 이슈를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양하게 제기함.

△ 자유권위원회(대표/김정희/김보영/고근예)- 감옥 지침서 발간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가보안법의 재논의에 맞춰서 국가보안법 7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동하기로 함.

△ 인권영화제(김정아)- 4회 이후 제기된 영화제 상을 집중 고민하여 대중에게 다가가는 영화제를 기획하며, 이후 전면적인 배급사업을 중심에 놓기로 함. 이를 위해 담당자 뉴욕 연수.

△ 총무(이창조)- 자립적인 재정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후원회 건설을 추진함.

<자유권위원회 2월 월례토론>

민영교도소 찬반 논쟁과 김석진씨 사례 검토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부터 사랑방 회의실에서 첫 번째 월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민영교도소, 찬반논쟁에 대해 민주법연의 최정학(감옥모임)씨가 발제, 교도소 사례로 마산교도소내 가혹행위로 법정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김석진씨의 사례를 고근예씨가 발표를 맡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11명이 참가했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3월 월례토론 주제로 '북한인권 문제를 올바로 보기 위한 북한의 형사법제, 헌법 알아보기, 99년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의 성과와 전망'으로 잡았습니다. 월례토론은 매월 세 번째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민영교도소 장점을 공교도소에서 살려내는 방법 모색해야

발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점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과밀수용 등 교도소의 여러 가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 등 국가의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또, 질 좋은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교도소로 다양화하면서 재소자를 개별 처우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민간의 형벌참여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부분적으로 있어왔고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교도소 운영이 국가의 고유업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기한 '형벌의 집행'과 관련, 국가의 고유 업무라는 근본적인 이유와 재소자의 관리 책임, 국가개입 여부와 정도, 교도소운영 주체의 관리와 감독 등의 문제 때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민영교도소의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이윤을 동기로 운영될 민영교도소의 부작용 즉, 이윤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재소자의 구금시간 연장, 수용인원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노력 등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토론에서 민영교도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98년 이후 전 공기업에 불어닥친 민영화의 열풍이 교도소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교도소 민영화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 방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국가에 교정시설의 운영과 재소자를 맡겨둔다면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조심스럽게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영교도소 설립과 현재의 법은 반대하지만 민영교도소의 장점을 공교도소에 살려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 및 공청회를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민영교도소 논쟁에 이어 96년 마산교도소에서 50일 가까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김석진씨 사건 사례 검토가 있었습니다. 출소후 고소, 재정신청,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지난 2월10일 교도관의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돼, 손해배상에서 부분적인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지난해 12월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석진씨의 경우 가혹한 계구사용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검찰의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과 법무부에 교도소 계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관련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의견들을 모아 자유권위원회에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 ≡

사 / 업 / 보 / 고

(2000년 1월 넷째 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 ≡

인권교육실, '노인과 인권' 토론

지난 1월 29일과 30일 민간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워크숍을 성공리에 끝마친 인권교육실은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교육실이 개최하는 사랑방 월례포럼이 지난 2월 12일 열렸습니다. 이번 3번째 월례포럼의 주제는 '노인과 인권'이었으며, 15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빈부간 격차의 확대로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노인들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지난 91년 '노인에 관한 유엔원칙'(resolution 46/91)을 채택하면서, 독립(independence)과 참여(participation), 보살핌(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성(dignity)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스스로 노인들을 위한 '밝은노후센터'를 구성해보면서 ① 노인은 사회의 수혜자만이 아닌 기여자의 존재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노인 내부의 차이를 잊지 않으면서 노인 가운데 더 취약한 입장에 있는 노인들을 우선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③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④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⑤ 나이듦은 지속적 성장과 자아발전의 과정이다 등의 원칙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3월 월례포럼은 '성(性)매매와 인권'을 주제로

로 3월 4일(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실에서는 16일 유네스코 협력동아리 훈련워크숍, 17일 송실대 법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실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인권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재 개발을 위한 교재개발팀에서는 현재 교육방법론 등 기초적인 학습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29일 학습 모꼬지를 떠날 예정입니다.

사회권위원회, 조약 해설서 작업에 박차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조약 해설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조약 해설서 작업에는 최은아, 이주영씨 등 상임활동가 2명을 비롯해 총 9명이 결합해 있으며, 대중적인 소책자 형태로 4월중에는 발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권조약에 대한 학습을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월 10일에는 정인섭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었으며, 2월 17일에는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학습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권민간단체보고서 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셈2000 한국민간단체포럼'의 인권분과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아셈사업과 WTO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무국장과 2명의 자원활동가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셈민간단체포럼은 오는 2월 23일부터 24일 서울에서 아시아-유럽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아셈민간단체포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포럼의 기조와 주제, 조직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인권분과는 이에 맞춰서 의제문제에 대해 집중 고민하였는데, 아셈회의를 씨애틀, 다보스, 방콕으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장으로 설정하고, 국제경제질서 질서의 인권적 영향을 분석

하고, 국가폭력 근절과 빈곤 및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의제로 제안하였습니다.

에바다복지회 새 이사진 개편키로

3년여를 끌어온 평택 에바다 농아원 사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는 3월말로 현재의 이성재 이사장 등 관선이사진들의 임기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인선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새 이사회는 김철준 변호사를 비롯해 지역의 민주적인 인물들을 배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와 이성재 이사장 측이 합의했고, 2월중으로 새 이사진의 구성이 완료됩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무국장은 김철준 변호사와 이성재 의원을 차례로 면담하고, 김철준 변호사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새 이사진 구성에는 김철준 변호사측이 명단을 제시하고 이를 이성재 이사장측이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에바다 연대회의는 새 이사진 체제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계획을 고민중이며, 새 이사진과 함께 에바다 농아원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장애인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지마을 1차 민사재판은 현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재판부가 이동함에 따라 다소 시일이 더 걸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소송이 끝난 직후 10여명의 양지마을 퇴소자들의 민사재판도 이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기구공대위, 평가토론회 가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21일 평가토론회를 갖고 지난 1년 반동안의 공대위 활동과 조직체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 인

권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시켜 내교 정부안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공대위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후 공대위에서는 활동의 체계화, 안정화, 일상화를 통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까지 매진할 생각입니다.

현재 공대위에서는 '대통령 인권정책자문기구'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청와대측에서 인권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자문할 민간 자문기구 구성을 제안해 왔으며, 이에 따라 공대위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서 인권정책자문기구의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이 자문기구가 국가인권기구를 대체하는 장식용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 소속단체들이 합의한 원칙입니다.

자유권위원회, 감옥지침서 작업 꾸준히

감옥모임이 꾸준히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감옥지침서 작업을 착실히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의 감옥모임에서는 재소자 인권지침에 들어갈 내용 중 형사소송절차와 교도소 분류심사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변호인 선임, 재판진행, 항소·상고시 유의사항,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방법, 수사기록열람의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고, 분류심사부분에서는 신입심사와 재심사, 누진처우, 재소자 점수환산방법, 분류표 등을 넣기로 했습니다.

다음모임은 28일 저녁 7시이고, 교도소 하루일과와 교도소 거실 내·외 생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한편, 국가보안법 사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최근 민변과 민가협과 김대중 정부 2년(1999년) 보고서 작업을 공동으로 하

기로 하면서 이후 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전면적으로 체제 전환

〈인권하루소식〉이 3월부터 운영 체제를 개편합니다. 현재는 2명의 전임 기자와 함께 사무국장과 총무가 결합하여 편집회의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제가 안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인력의 제한과 아이템의 빈곤을 초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결합하는 대표님을 중심으로 전문기자(류은숙, 배경내, 이주영, 김보영)들의 활동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유해정씨를 전임 편집기자로 배치하여 편집의 안정성과 기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기사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체제를 8월까지 가동하고, 이를 평가하여 새로운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권시평 필진들을 오는 3월부터 개편하고, 논평의 정제화를 통해 인권흐름에 대한 사랑방의 입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사랑방은 인권매체전략에 대해 고민하면서 현재의 〈인권하루소식〉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인권정보자료실의 1차 자료정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개월여 동안 자료정리 끝에 불필요한 자료들을 숙아냈고, 소주제별로 패키지로 묶어서 찾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사랑방만의 차별화된 자료실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모색, 자료 수집과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 사랑방 홈페이지가 지난해 가을 개편된 이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사업단위별

로 자료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는 체제로 바꾸어 2월말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선보이게 됩니다. 홈페이지 담당자는 자유권위원회의 김정희씨가 말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여전히 <http://www.sarangbang.or.kr>입니다.

□ 대학생인권운동 그룹이었던 '리단'이 사랑방 청년소모임으로 결합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원활동을 하면서 인권운동가로서의 꿈을 키워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3개월 단위로 주제를 바꿈가며 의제개발 토론을 하고, 영어 문건 번역 등으로 사랑방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지난해말 유가협 부모님들의 422일 농성투쟁 끝에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진상 규명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사무국장은 유가협과 추모단체연대회의 등과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변호사가 사랑방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변호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나와서 내담자의 상담을 직접 받을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도 하기로 하였고, 사랑방 내의 각종 법률자문에도 응할 예정입니다.

□ 3월 사무국의 개편에 따라 사무국의 자리배치가 재조정되었습니다. 답답했던 4층 공간을 집기를 재배치하여 탁 트이고 시원한 공간으로 만들었고, 5층에 대표 집무실을 마련했습니다.

□ 사회권위원회의 최은아씨가 재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제네바 인권위원회 연수를 포기했습니다. 최은아씨는 인권영화제 담당자인 김정아씨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7월까지 임시로 영화 배급사업을 맡게 됩니다.

□ 재미동포 안덕근씨(하버드대 법대 재학 중)가 여름방학 때 인턴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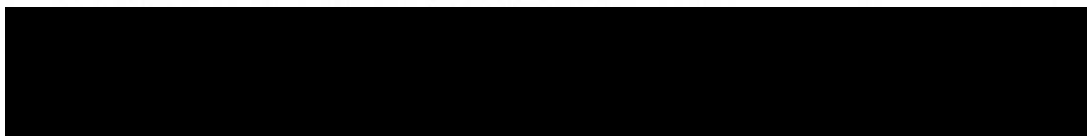
2000년 1월 재정 보고

(2000년 1월 16일 - 2000년 2월 15일)

이월금: 6,211원

수입		지출	
사업수익	8,663,230원	사업비	970,290원
-하루소식	2,723,900원	-하루소식	166,630원
구독료(179명)	2,667,200	우편발송비	129,530
인권시평 배급	56,700	자료구입비	10,500
-간행물 및 자료판매	522,460원	출장비	26,600
인권교육길잡이	35권	-자료실 자료제본비	28,920원
인간답게 살권리	16권	-후원회원 관리비	27,760원
하루소식 합본호	13권	-신년 연하장 제작·발송	431,780원
아이들의 인권	1권	-사무국 MT	70,200원
국보법 보고서	1권	-‘아이들의 인권’ 구입	245,000원
법과인권	1권	활동비	3,970,000원
국감 자료집	1권	사무실유지비	956,660원
2기 활동가 자료집	1권	통신비	1,067,660원
-교육 및 강연수익	689,200원	-일반전화, 팩스	975,460
-인권교육워크샵	361,170원	-피시통신, 인터넷	92,200
-재정사업	4,362,200원	난방비(가스, 기름)	126,500원
설날 선물세트 판매사업	3,362,200	사무비품 구입비	401,250원
번역	1,000,000	식비	267,980원
-자료복사비	4,300원	생활비(생수, 커피등)	169,360원
후원금	3,936,310원	기타	81,390원
-정기 후원회비(55명)	2,384,050	-사무국장 핸드폰비용	41,500
-특별후원금	1,552,260	-정 간물 구독료	36,000
기타	300,000원	-우편물 발송비	3,890
-류은숙 기여금	300,000	부채상환	4,600,000원
총수입:	12,899,540원	총지출:	12,611,090원
잔액 :			294,661원
현 부채액 :			8,806,500원

후원회비 납부계좌



*** 기타 문의는 총무 이창조(02-741-5363)

<2000년 1월 재정 세부사항>

-천주교 인천정의평화위원회와 신경구(전남대) 교수 님, 서울시립대 언론탄압 대책위원회, 독일 양심수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나눔의집에서 쌀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국 부채 해결을 위해 설 선물세트 판매사업을 벌였고 총 3백3십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의뢰해온 번역작업을 통해 1백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달 재정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4백30여만원)은 전액 부채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지난달까지의 부채 가운데, 인권영화제(지난해까지 인권영화제는 사랑방 사무국과는 독립된 재정을 꾸려왔습니다)등에 지고 있던 부채 4,336,900원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현 부채규모는 8백8십만원 가량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년 연하장을 구독자와 후원회원, 각 사회단체 등에 발송하면서 사업비 지출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또 사무비품 구입비가 전월에 비해 20만원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우편발송용 전산용지의 수개월치 사용분을 재구입하고 사무기기 소모품을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용이 1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은 생수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연말, 연초의 사무국 휴가로 인해 통신비용은 약 2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회비의 전체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시는 후원회원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전월 45명에서 이번달 55명) 주변에서 사랑방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모아주시면 사무국 재정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율 및 납부액이 전월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달(2/16-3/15)에는 사무국 내 전용선 설치 및 랜 구축비용(약 60만원)과 인권하루소식 합본 13호 제작·발송비(약 60만원) 지출이 예정되어 있어 지출규모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무국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계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1월 후원회비 납부 감사합니다>(가나다순)

